



즉시 배포용: 2017년 1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ICYMI: CUOMO 주지사, 임금 격차를 제거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뉴욕의 노력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 명령들에 서명

“우리는 급여 이력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채용 실무를 채택하고, 모든 주 정부 계약업체들에게 직원의 성별과 급여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여성의 권리와 평등한 보수를 증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뉴욕은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당당하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 명령 [제161호](#)는 주 정부기관이 종전의 임금 이력에 기초해서 채용 예상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함

행정 명령 [제162호](#)는 투명성을 증진하고 임금 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주 정부 계약업체에게 모든 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및 급여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

어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임금 격차를 조속히 제거하기 위한 2개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 명령들은 모든 주 정부기관들이 채용 후보자의 종전 임금에 기초해서 후보자를 평가하거나, 채용 예정 직원에게 종전의 임금 이력을 질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뉴욕에서 평등한 임금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뉴욕은 주 정부와 계약하는 업체들에 대해 피용자의 성별, 인종 및 민족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세금을 활용해서 주 전역에 걸쳐 투명성을 증진하고, 임금 평등을 진전시킬 것입니다.

주지사는 사회적 정의의 원칙을 진전시키고, 뉴욕의 진보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전례 없는 패키지이자,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항해서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국가적 기준인 [“New York Promise” 어젠다](#)의 일환으로 이 행정 명령들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는 어제 그의 뉴욕시 지역 시정연설에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 평등을 증진하는 것에 대한 Cuomo 주지사 발언의 동영상은 유튜브의 [여기](#)에서 제공되며, TV 품질(h264, mp4) 파일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행정 명령 제161호

행정 명령 제161에서는 주 정부기관이 예비 채용자의 종전 임금 이력을 묻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업들은 후보자의 종전 임금 이력에 기초해서 임금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개인들, 주로 여성과 소수자들이 그들의 전체 직업 경력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공정한 보수의 순환을 깰 것입니다.

주 정부기관의 채용 후보자는 자신이 보수가 포함된 조건부 채용 제안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현재 보수나 종전의 보수 이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조건부 제안이 제시된 다음에는, 주 정부기관이 보수 정보를 요청하고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주 정부기관이 이미 지원자의 종전 보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채용 예정자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주지사의 노동관계국(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이 이러한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것이며, 새로운 법령의 요건에 대해 주 정부기관의 소관 인사 담당자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행정 명령 제162호

행정 명령 제162에서는 모든 주 정부 계약업체들이 2017년 6월 1일 및 그 이후에 발표되거나 체결되는 모든 주 정부 계약, 합의 및 조달에서 자사의 모든 직원들의 성별, 인종, 민족, 직책 및 급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날 및 그 이후에 발표된 계약 및 조달에는 반드시 이러한 추가 요건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청업체들도 반드시 그들의 직원들에 대해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금액이 25,000달러를 초과하는 원청계약에 대해서는 분기 단위로 주 정부기관 및 당국에 보고될 것이며,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건설공사 원청계약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보고됩니다. 이 조치는 세금을 활용해서 임금 평등을 향한 투명성과 진전을 추진시킬 것입니다.

임금 격차 제거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기초할 때, 뉴욕의 여성은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87센트를 벌고 있습니다. 유색 인종 여성은 백인 남성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열악합니다. 남성의 1달러 대비,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은 평균 69센트를 벌고, 라틴계 여성은 58센트를 벌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 미국에는 1,200만 가구의 한 부모 가정이 있었으며, 그 중 80% 이상이 싱글맘 가정이었습니다. 뉴욕의 경우, 주 전역의 아동 중 3분의 1 이상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맥킨지 (McKinsey) 보고서에서는 전체 노동력 패리티(full labor force parity)가 2025년까지는 미국 GDP (Gross Domestic Product)에 대해 추가로 4.3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주 정부는 모범을 보이면서 선도해야 하며, 모든 뉴욕 주민들에 대해 평등한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 전역의 임금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Cuomo 주지사는 다음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여성 권리 증진

이 발표는 2015년에 서명된 주지사의 전면적인 여성평등법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 법은 고용주가 임금 정보를 공유하는 직원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성별, 인종 또는 민족을 이유로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고용주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뉴욕에서 임금 평등 보호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률은 인신 매매 법률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으며, 모든 직장에서 임신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종식시켰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